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문 대통령의 방중(訪中)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옛날 절대 왕권시대에 왕이나 절대 권력자를 찬양하고 신격화하는 글이나 시(詩)를 가리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라고 불렀다. 부정선거가 아니고 공명정대한 합법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적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도 용비어천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투표도 크고 작은 세상사도 찬성과 반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북경 공항에서의 영접부터 말이 많다. 국민(國民) 방문의 대통령을 중국의 차관보급이 영접하는 것이 외교 관례상 결례(缺禮)라는 지적이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찬과 천만일(陳萬日) 총칭(重慶)시 서기와의 오찬을 빼고는 모두 혼자 먹는 밥을 먹었다. 대통령이 혼자 밥을 먹은 것이 아니고 수행원들과 함께 북경 시내 서민식당에서 식사한 것이다. 정상회담 후에 있는 공동성명도, 공동 언론 발표문도 없이 이례적으로 각자 언론 발표문을 내놓았다.

여기에 문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던 한국 기자단 중 2명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돌발사건까지 터졌다. 옆친 데 댈친 격이었다. 여기에 보수 성향의 국내 언론은 북한을 더욱 강하게 제재 압박하는 결정적인 방법인

북북 원유 공급 중단'을 중국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놓고 정당들은 '국과 국'으로 같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철회시키고 양국 관계회복을 한 성공적인 외교'라고 평가하고, 자유한국당은 '말유 외교 조공(朝貢) 외교, 정유(丁酉) 국치(國恥)', 국민당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외교 참사, 외교부 장관과 주중대사 경질'을 주장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을 두고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린 적도 드문 일이다.

내가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성공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북핵과 관련된 3가지 직접적 합의다. 여기에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데 두 사람이 합의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확인하고 대외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국가 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를 대

표하는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元首)가 만나서 합의하여 전 세계에 선언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다. 위의 4대 원칙을 합의하여 선언한 일 하나라도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는 100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선언 하나라도 100점 이상이다. 우리 국민들은 전쟁 변역이 생겨서인지 전쟁 위기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 미국, 중국 등 외국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화약고처럼 전쟁 위험지대로 알고 있다.

결핍하면 '신체 타격'이다. '최첨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다. '잠수부대 훈련'이다. '더 강한 제재 압박'이다 등 대하나 평화와는 거리가 먼 말폭탄과 제재 강화와 위협만이 문제 해결과 애국인양 관치는 험악한 관공에 '전쟁 절대 반대'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신신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이다. 북한 핵 등 한반도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선언도 신신하고 너무나 타당하다. 우리에게 숙명적인 존재이고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인 중국 최고 지도자와 문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한 선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이라면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인 주장'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한 것도 참으로 잘한 일이다. 충칭은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끌던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한다고 우리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되어 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법통이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은 민족의 뿌리 찾기 차원에서도 훌륭한 족적을 남겼다. 충칭에 있는 '광복군 총사령부 터'도 복원할 것을 천만일 충칭시 서기와 협의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충칭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다.

충칭시에는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현대자동차 공장과 SK하이닉스가 있는데, 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했다. 충칭시는 인구 3천만 명이 넘고 시 주석이 아임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심 도시다. 일대일로의 일대(One Belt)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는 육상실크로드 경제 벨트이고 일로(One Road)는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말한다.

중국과의 친선 우호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중 첫 날인 12월 13일은 일본군에 의한 '난징(南京) 대학살'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에 진공하여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던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던 항일(抗日)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항일과 뿌리 찾기, 경제 교류를 매개로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한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전략적이고 감동적이었다.

社說

'100원 택시' 활성화해야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 지역에 이른바 '100원 택시'가 달릴 전망이다. 기대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82개 군 지역에서 농업 분야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사업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 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며 '100원 택시'라는 고유 명사가 상징적으로 붙게 됐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며 매년 10~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도 올해 대비 4.5배 수준인 32억 원이 증

액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업 확대와 동시에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은 해당 지역 1인당 버스 요금(1천2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 마을 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농촌 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 바란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骸 垢 想 浴

배 해 때 구 생각 목욕할 욕

骸垢想浴

▷ 뜻: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하기를 생각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겨울철 공장 및 작업장 화재 예방하자

겨울철을 맞아 일부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 난방기 등 전열기구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화재발생 우려가 높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크고 작은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의 화재를 빈번교사(反

面教師)로 삼아 화재예방에 힘써야 한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는 위험물 전기, 가스 등 가연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 일단 공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그 피해도 생산중단으로 이어져 실로 측정하기 어렵다.

공장 및 작업장 등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방

시설 사용에 관한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자체소방조직의 운영내실화 및 공용일 안전관계자 비상조편성 등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자.

또한, 위험작업(화기, 용접, 고소, 고압전기, 유독물취급 등)은 사전허가와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작업을 개시하며 화재발생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화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자.

아울러, 용접작업시에는 인근에 소화기 및 방치포 등을 근접

배치하고 불티가 인근 가연물이나 위험물 등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담뱃불로 인한 화재의 예방을 위해서 종업원들의 흡연 장소를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평소에 공장 및 작업장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자.

김명원 / 고충소방서 구조대장

湖南新聞 本 社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척이네요... 자대치료쪽에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등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